

임미숙 후보 "강력한 법 제정으로 또 다른 김태규 희생 막아야"

등록 2020.04.10 19:15:01



[수원=뉴스시스] 정은아 기자 = 10일 오전 7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에서 민중당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임미숙 후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시민들과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에는 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플루트 연주하는 모습. 2020.4.10 jea69@newsis.com

[수원=뉴스시스] 정은아 기자 =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임미숙 후보는 고(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1주기를 맞아 "강력한 법 제정으로 또 다른 김태규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10일 오후 고(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세월호 아이들이나 김태규 청년이나 대한민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희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4·15총선 사전투표 첫 날 임 후보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고(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1주기 추모제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7시 화서역에서 임 후보는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잊지 않겠다'는 팻말을 들고 시민들과 출근 인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20년 사제 간인 김현숙 당원과 이진숙 당원이 '플루트 연주' 봉사로 임 후보의 뜻을 지지했다.

임 후보는 "생명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당 후보들은 세월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5대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수원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한 명도 이번 총선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며 "거대 양당 모두 엄중하게 비판받아 마땅하고,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성토했다.



[수원=뉴스시] 정은아 기자 = 1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화서1동 행복주민센터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에서 민중당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임미숙 후보(가운데)가 가족들과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0.4.10. jea@newsis.com

이날 오후 2시 화서1동 행복주민센터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친 임 후보는 수원연화장 추모의 집을 찾았다.

지난해 4월10일 수원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고 김태규 청년노동자 1주기 추모제를 지내는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

임 후보는 지난해 사고가 난 이후 민중당 청년당원들과 함께 고 김태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 김태규 가족들은 추모제를 찾은 임 후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가족들은 "임 후보와 민중당 청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수원=뉴스시] 정은아 기자 = 10일 오후 3시 수원연화장에서 민중당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임미숙 후보가 고(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1주기 추모제 참석 모습. 2020.4.10. jea@newsis.com

임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고 김태규 청년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화도 없이 일하다 무방비상태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노동부에서 나섰지만 우리는 아직도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임 후보는 "검찰이 책임 주체인 시공사와 발주처의 법인 대표를 기소해야 비로소 추락 원인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기업 살인의 예방 대책 중 최선이지만 거대 양당의 반대에 막혀 모조리 계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선거는 위험적인 위성 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대결"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맞서 날 선 한판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임미숙 후보는 15일 선거일까지 자체적으로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